

인하대·아제르바이잔 바쿠공대, 복수학위 2단계 본격화

등록 2026.06.01 10:48:13



[인천=뉴시스] 인하대와 바쿠공과대학교의 DDP 2단계 계약체결 협정식에서 조명우(오른쪽) 인하대 총장과 야굽 피리에프(왼쪽) 바쿠공과대학 총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하대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하대학교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바쿠공과대학(BEU) 복수학위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하대는 2019년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와 '3+1 공동운영 교육과정' 추진에 합의했다.

3+1 공동운영 교육과정은 바쿠공과대학 학생들이 두 학교가 공동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3년 동안 현지에서 공부한 뒤 나머지 1년을 한국에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해 2개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이다.

2020년부터 정보통신·전자·전기·토목 등 4개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 운영을 진행해 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인하대의 1단계 사업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해 대통령령을 통해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인하대는 바쿠공과대학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공학계열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 분야까지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 교육 강의 언어도 기존 한국어 중심에서 영어 기반으로 확대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기존 7년(2020~2027년)에서 9년(2025~2034년)으로 확대됐고, 입학생 모집 기수도 1단계 4개 기수에서 2단계 6개 기수로 늘어났다.

인하대는 2단계 사업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인하대의 공학교육 모델이 해외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사업으로 정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교육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앞으로도 첨단분야 중심의 글로벌 교육협력을 강화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